

벤츠 중고차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벤츠 인증 중고차 출범 10주년 기념 프로모션...내달까지 시승 서비스·무상 차량 보증 추가 등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인증 중고차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경험하기 힘들었던 시승 서비스는 물론, 무상 차량 보증 추가 제공과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브랜드의 인증을 받은 중고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활용할 경우 벤츠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신성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중고차 광주전시장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국 23개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10주년 프로모션을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캠페인 기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금융 상품을 이용해 인증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저 금리 3.99%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1년 또는 2만km의 무상 차량 보증에서 추가로 1만km를 제공한다.

또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 소유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판매하고 신차를 재구매하는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경험하기 어려웠던 시승 서비스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중고차 광주전시장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A 220 해치백'과 'CLS 450 4매틱', 'GLC 300E 4매틱 쿠퍼' 등 3개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프로모션 기간 내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AMG 스피드웨이에서 진행되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티켓 및 120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캠핑 용품 세트도 제공한다. 구매 고객 뿐 아니라 전장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경품도 한정수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광주전시장에는 20여대의 차량이 전시돼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투명한 중고차 매매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중고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브랜드를 국내에 공식 출범했다.

인증 중고차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통해 공식 수입된 차량 중 6년 또는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198가지 항목의 품질 및 안전성 검증 이후 재상품화 과정을 거친다. 이밖에 1년 또는 2만km까지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등 사후 서비스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인증 중고차를 믿고 선택해 준 고객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관리 유지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3년만에 확 달라졌다 기아 '더 뉴 K9' 공개

기아는 17일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K9' (The new K9)의 외장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다.

더 뉴 K9은 2018년 4월 K9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로, 국내 자동차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럭셔리 세단으로 꼽힌다.

기아는 기존 K9에 세련되고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해 한층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더 뉴 K9의 전면은 크기와 너비를 대폭 키운 라디에이터 그릴에 빛이 반사되는 듯한 V 형상의 정교한 크롬 패턴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감성을 구현했다. 가늘면서도 매끄럽게 가로로 확장된 헤드램프를 통해 첨단적인 분위기도 연출했다.

옆면은 균형잡힌 실루엣과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중후한 느낌을 살렸고, 뒷부분은 세로형의 램프 그래픽으로 헤드램프의 그래픽과 통일감을 줬다.

또 와이드한 하단 범퍼로 안정감을 주고자 했으며, 번호판을 범퍼로 이동시키고 트림명 부착을 없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차박' 하시게요? 현대차 무상제공합니다

체험 플랫폼 '휠핑' 8월 12일까지 참가자 모집...아이오닉 5 등 내달 4일부터 진행

현대자동차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6월부터 운영되는 차박 체험 플랫폼 '휠핑'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휠핑'은 최근 증가하는 차박(차+숙박)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반영해 선보인 플랫폼이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테이블과 의자, 폴딩박스, 매트 등 필수 차박용품을 소정의 금액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 동안 20팀씩 7회차(총 140팀)에 걸쳐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올해는 휴가철인 다음달 4일부터 8월22일까지 약 3개월간 30팀씩 12회차(총 360팀)에 걸쳐 진행되는 등 규모를 확대했고, 대상 차종도 지난해 운영한 투싼, 싼타페(사진)에 아이오닉 5가 추가됐다.

지난해 1곳(고양)에서 올해는 서울(2곳), 천안, 전주,

부산, 울산 등 총 6곳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지역도 늘렸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8월 12일까지 희망 차수에 맞춰 휠핑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회사별 당첨자는 차박용품 대여료를 결제한 뒤 이용일에 맞춰 차량 및 차박용품을 수령하면 된다.

현대차는 이번 휠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간편식과 간편양념, 예코백,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웰컴 키트를 제공하고, 원하는 고객에 한해 LG전자 시네빔과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무상 대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및 차박용품을 한 번에 예약하고 원하는 일정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차박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휠핑의 장점"이라며 "한층 개선된 휠핑을 통해 고객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S 클래스 여성 고객 최다국은? 한국 6만6798대 중 1만6700여대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럭셔리 세단 S 클래스를 구매한 여성 고객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S 클래스 고객들은 편안한 승차감을 가장 선호하는 요소로 꼽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국내 공식 출시를 기념해 S 클래스의 역사 등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최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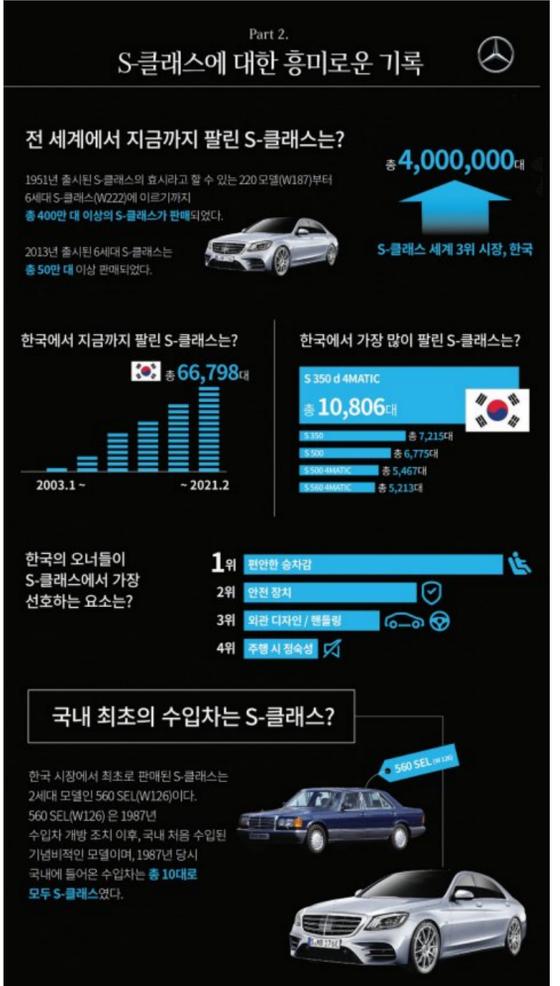
해당 자료에 따르면 S 클래스는 국내 최초의 수입된 자동차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87년 수입차 개방 조치 이후 S 클래스의 2세대 모델인 560 SEL(W126)이 국내에 최초로 판매됐다. 이후 2003년 국내 시장에 공식 수입되기 시작한 이후 2021년 2월까지 총 6만6798대가 판매되는 등 한국은 S 클래스 세계 3위 시장을 이끌고 있다.

또 국내 S 클래스 고객 4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전 세계에서 S 클래스를 구매한 여성 고객이 가장 많은 국가로 한국이 꼽혔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S 클래스는 S 350 d 4매틱(1만806대)으로, S 350(7215대), S 500(6775대), S 500 4매틱(5467대), S 560 4매틱(5213대) 순이었다.

이밖에 국내 S 클래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소로는 편안한 승차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장치와 외관 디자인·핸들링, 주행시 정숙성 등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